

# 전북대, 시무식 갖고 '신축년 힘차게 시작'

###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비율 확대 · 거점 국립대 간 학사교류 강화 · 연구력 확보 지원책 마련 등 노력

전북대학교는 4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시무식을 갖고 2021년 한 해를 힘차게 열었다.

올 시무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국민의례로 시작된 이날 시무식은 정부 표창 대상자 소개와 김동원 총장의 시무식사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김용대 총무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채준호 교수(상대 경영학과)와 장홍수 팀장(총무과)이 고충노동부장관 표창, 박조룡(정보전산원)·최시영(국제협력부) 직원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구진희 팀장(중앙도서관)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더불어 전북대는 교육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김동원 총장은 시무식사를 통해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확보와 BK21 4단계 사업선정, 학생만족도 지방 국립대 1위, 약대 신입생 선발, 대학본부 리모델링 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며 "모든 성과는 묵묵히 소임을 다 해준 교수님과 직원선생님, 특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새해에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과 학부 및 대학원 교과



전북대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에 따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올해 시무식을 갖고 2021년 한 해를 힘차게 열었다.

과정 개정 마무리, 국가거점국립대 간 학사교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비율을 현행 30%에서 비수도권 지역대학 졸업생 20%를 추가해 50%로 확대하고, 학과 자율적 프로그램 개

발 지원과 대학원 기능을 강화해 연구력 확보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서로 공감하고 협력한다

면 조만간 일상으로 복귀하리라 믿는다"며 "우보만리(牛步萬里)의 꾸준한 걸음으로 새해에는 비록 더디 가더라도 성실함으로 뜻하는 일 다 이루길 바란다"고 새해 희망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한국정보과학회 '최우수논문상'

### 최지원 대학원생, 소프트웨어공학 분야 연구 '우수'

전북대학교 최지원 대학원생(소프트웨어공학과)은 2020 한국 소프트웨어 종합학술대회(KSC2020)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지원 대학원생은 '소프트웨어 결함 예측을 위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소프트웨어 결함 예측 도메인에 생성적 모델을 접목시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 향상이 가능한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지원 대학원생은 "최우수논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류덕산 지도 교수님과 김순태 교



수님, 이재욱 연구원 등 동료 연구원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만큼 앞으로 소프트웨어공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는 2020년도 글로벌 해커톤 경진대회 1위 및 2017년도 K-해커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장은성 기자



## 호원대, 2021학년도 편입생 모집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4일부터 14일까지 2021학년도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모집에는 정원내 331명(정원내), 47명(정원외) 총 378명이다.

편입생 입학원서는 14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실용음악학부, 공연미디어학부, K-POP 학과는 오는 23일~24일 실기·면접고사를 진행한다. 그 외 학부(과)는 서류전형으로 진행되며, 2월 1일 14시 학교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호원대는 코로나19 등 편입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번 편입생들에게 장학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입학하기 등록금은 100%, 3학년 2학기 등록금 50%, 잔여학기 등록금 30%를 감면했다. 단, 일부 학부(과)는 제외된다.

자세한 선발 기준은 호원대학교 홈페이지 편입생 모집 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호원대,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호원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종사자 항공정비사과정 교육기관(지정번호: 2020-ATO-26, 2020.12.9.)으로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항공기술교육원 항공정비사 양성과정은 호원대 항공정비공학과 입학생과

고교이상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입교가 가능하며, 정원은 연 48명으로 3년간 총 144명이다.

교육과정은 학과교육 1,249시간, 실기 1,251시간으로 총 2,500시간(3년과정)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되는 집중교육이 이뤄진다.



호원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종사자 항공정비사과정 교육기관(지정번호: 2020-ATO-26, 2020.12.9.)으로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호원대학교는 기존에도 대학과정으로 항공정비사과정을 꾸준히 시행한 곳이라 졸업생(항공정비사)들이 항공사, 각 군 장교 및 부사관 그리고 공군항공과 학교등학교 및 전문교육기관 교관 등으로 진출했다.

오경원 항공기술교육원장은 "재만금에 4대 SOC사업(도로, 철도, 항만, 국제공항)이 진행 중이며, 예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과 항공정비유지(MRO) 단지 구축사업은 이러한 수요에 따라 창출되고 있다"며 "호원대 항공기술교육원은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해 항공정비 전문 인력양성을 하는 핵심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성 총장은 "신축년을 맞아 항공기술교육원 현판식을 갖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소(牛)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이로써 동물이자. 이 기운을 받아 2021년에는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항공 산업이 활황 날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식품산업 산학 공동프로젝트' 성료

### 원광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 팀별 식품산업 발전 과제 수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2020학년도 식품산업 산학공동프로젝트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북도에서 주관하고 원광대에서 운영하는 대학 산·학·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의 식품산업 산학공동프로젝트는 지역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식품 관련 제품 개발 및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전공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3개월에 걸쳐 추진됐으며, 관련 학과를 포함한 6개의 팀에서 24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만 동원된 가운데 일부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반조리식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와 '과민성 장 증후

군 대상자를 위한 메뉴 및 레시피 개발', '미생물을 활용한 매운맛 저감화 식품 개발' 등 팀별로 다양한 주제를 정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특히 학생들은 경영방식을 탐구하고, 협업을 통해 학생 및 교수, 참여기업 및 재직자들이 다채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원광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장 이영은 교수는 "코로나19 등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친 참여자들에게 감사하고, 학생들이 지역인재로서 식품에 관련한 문제 현안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높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식품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림 기자

# 謹賀新年

## 2021년 새해에도 OCI는 전북경제를 이끄는 대표기업이 되겠습니다

